

## 미래를 지향하는 싱가포르

● 李 永 完 / 韓國國防研究院  
선임연구원, (예) 대령

싱가폴은 부가가치 활동의 연속적인 일부분으로서, 비교우위를 가진 부문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의 발전은 우리를 이롭게 할 것이며, 이 지역이 발전하면 세계 상업중심지로서의 우리의 지위도 향상될 것입니다. 따라서 싱가폴은 인접국가들에게 산업에 대한 운용의 중심지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변국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노동력과 토지 및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발전을 할수 있는 자극이 될 것입니다.

## 東南 아시아

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를 손꼽는다면 그 첫째가 싱가포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립한지 25년이 지나는 동안 싱가폴은 국가로서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지역내 주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다음은 〈Miltech〉誌 기자와 상공부장관이며 동시에 국방부 차관인 리센룽 예비역 준장과의對談 내용이다.

記者 : 싱가폴이 독립한지도 25년이 되었습니다. 싱가폴에 대한 안보상의 위협은 그동안 어떻게 변했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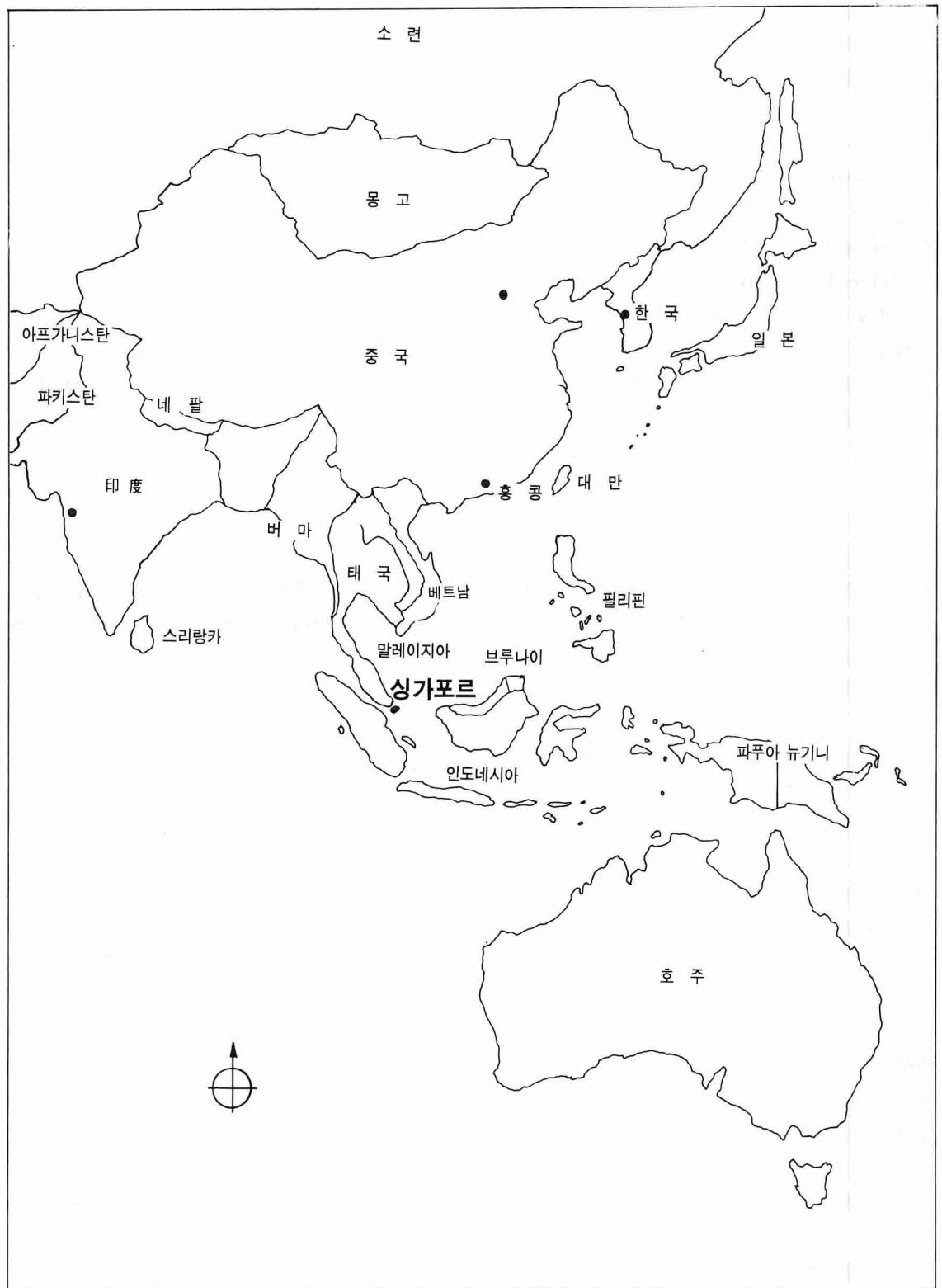
長官 : 싱가폴이 처음 독립했던 당시에는 국가방위를 위한 자체수단이 전혀 없었지요. 다만 현지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이 경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싱가폴 국군이 예상되는 어떠한 적국에 대해서도 억제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싱가폴에 대한 당면한 위협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남아에서 어떠한 분쟁사태가 돌발할 것에 항시 대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분쟁의 잠재적 근원의 하나는 남지나 해상의 서로 물려있는 영토에 대한 주장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은 이미 스프래트리 群島내의 몇개의 섬때문에 한바탕 격돌하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러한 영토에 대한 논쟁이 확대된다면 주요 해상교통로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싱가폴과 같은 지역내 국가는 물론 이 지역에서 무역이나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강대국에도 중대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기자 : 이 지역밖의 많은 사람들은 ASEAN에는 여러가지 불가사의한 문제가 존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구에 대한 조직내에서의 싱가폴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장관 : 아세안은 동남아 안전을 위한 관건적인 기구입니다. 지역내에는 경제, 문화, 인종 및 종교가 서로 다른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



2차대전이래 아세안의 회원국들은 때때로 서로 다투어 왔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지난 20년간 아세안이 그런대로 성공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늠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아세안공동체 국가들은 옛날 방식대로의 경쟁과 분쟁이 소리없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수시로 해소시키지 못하면 나날이 부적절한 상호관계를 야기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비록 정책방향과 정책수행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아세안 국가들은 국민의 복지우선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모두 지역적 안정과 화평이 필수조건이며,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불가피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논쟁거리가 생기면 해결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제쳐 두지요. 아세안 기구내에서의 상호협동은 각국의 국가적 잠재력이 최고로 신장될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회원국의 안전에 공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자 : 아세안은 동남아에서 평화, 자유 그리고 중립지대(ZOPFAN)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장관께서는 이러한 목표에 도달 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 : 아세안이 1971년 그러한 개념을 채택하고, 지역내에 이상적인 정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정학적 현실을 토대로 한 실로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현 상황하에서 지역내의 세력균형 유지의 필요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하티어 말레이지아 수상은 <International Harald Tribune>誌와의 인터뷰에서 평화, 자유 그리고 중립지대의 실현을 위해 강대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바 있습니다.

그는 캄란만과 다낭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의 군사력과 마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핵무기를 적재한 함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가 지속되는한 미국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철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보장이 있을 때까지 이 지역에 이해를 갖고 있는 외부세력은 물론 강대국은 우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견해입니다.

기자 : 싱가폴은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미국에 군사시설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남아 지역의 안보를 위해 기여할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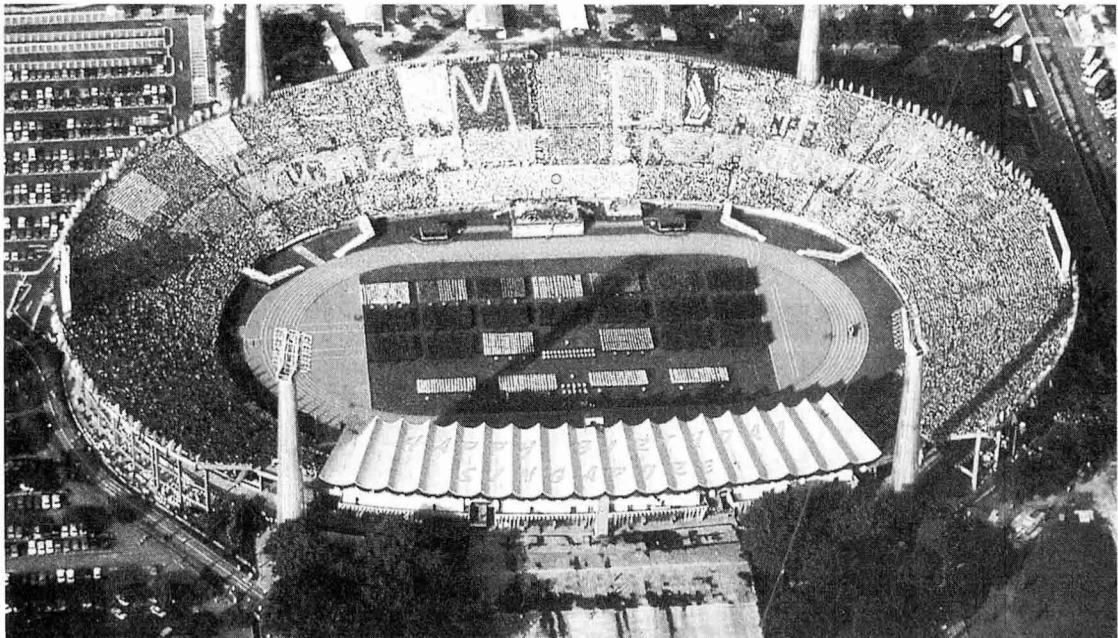
장관 : 싱가폴이 미군기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하여금 싱가폴내의 군사시설 사용을 증가시키도록 제의했을 뿐입니다. 미국의 함정들이 정비나 수리를 이해 종종 싱가폴에 오거나, 미국의 항공기가 파야레바 공항에 교대차 전개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2차대전이 종료된 뒤부터 非共產동남아가 변영하고 성장하는데 주된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제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최대시장이 되어 주었으며,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기술원(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유럽에서의 중요한 사건들과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정책들은 우리들에게 잘못된 안보인식을 갖게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련군이 여전히 베트남에 주둔하고 있으며, 지역적 긴장감은 강대국간의 관계와는 관계없이 고유의 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캄보디아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에서의 개혁 전망에 대한 의문점 역시 지역안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물론 싱가폴도 지역 안정에 모든 힘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지속적인 미국의 역할과 미국의 군사적 존재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자 : 캄보디아에서 철수한 베트남인들과



금년으로 독립 25주년을 맞게되는 싱가포르는 대규모의 독립기념행사를 기질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인 '89년 행사 모습

사실상 파괴된 경제상황과 더불어 베트남을 여전히 지역안정의 위협요소로 보십니까?

장 관 : 베트남의 철수는 아직 편견없이 공평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노이는 아직도 캄보디아에 대한 강경한 발언들을 하고 있으며, 이 나라에 대한 지배욕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상황은 하노이의 지도자들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1989년 8월의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는 정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타월성을 재확인한바 있고, 헝가리의 정치적 변화와 폴란드의 반혁명에 대해 언급한바 있습니다. 베트남인들은 확실히 동유럽의 변화에 대하여 상당히 놀라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그들이 좀더 평화적이며 자유스러운 정책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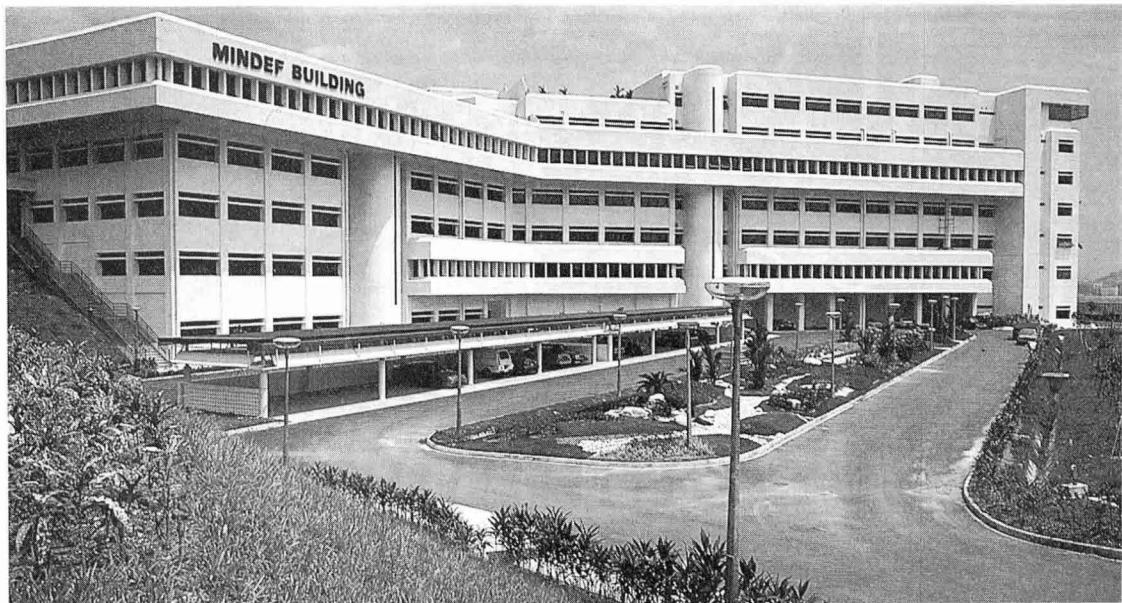
베트남의 발전은 첫째로 성실한 개혁을 이루려는 지도부의 의지와, 둘째로는 캄보디아에서의 문제해결에 달려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하여금 캄보디아의 효과적인 통제를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나 그들이 프놈펜에 설치한 괴뢰 정권을 정당화시키는 해결책은, 하노이와 다른 침략자들에게도 침략의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지역안정에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기 자 : 장관께서는 캄보디아 문제의 해결이 곧 이루어지리라고 보십니까?

장 관 : 대립관계에 있는 정당들이 여전히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도기적인 정부와 UN의 역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노이가 지금까지 보여온 입장이 변화되고 있다는 징표는 아직 없습니다.

베트남은 훈센(HunSen)의 전장에서의 힘을 시험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자신의 힘을 유지할 수도 있고, 아울러 국제적인 협상에서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민족주의 지하세력은 그렇게 될수는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독립을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국방부는 Bukit Gombak에 자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군 사령부도 같은 건물에 입주하여 있다

기자 : 화제를 국내문제로 돌리겠습니다. 싱가폴은 독립이후 대단한 경제적 성장을 하였는데, 경제발전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장관 : 싱가폴의 지금까지의 경제발전은 주로 제조업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제조업은 앞으로도 경제성장의 주축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에는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이 주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고도기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자들은 인적자원의 잇점을 잘 활용하는 싱가폴의 회사들을 찾게될 것이고,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은 싱가폴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서비스 부문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정부는 생산부문 뜻지않는 지원과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하부구조와 지역내 국가들간의 깊은 유대는 싱가폴로 하여금 총체적인 비지니스센터가 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싱가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료부문, 생물공학재단 등 기술 및 지식 집약적인 사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기자 : 지역내와 그밖의 국가들의 경제가 싱가폴의 경제적 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장관 : 싱가폴은 부가가치 활동의 연속적인 일부분으로서 비교우위를 가진 부문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의 발전은 우리를 이롭게 할 것이며, 이 지역이 발전하면 세계 상업중심지로서의 우리의 지위도 향상될 것입니다.

따라서 싱가폴은 인접국가들에게 산업에 대한 운용의 중심지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변국들은 우리보다 더많은 노동력과 토지 및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발전을 할수 있는 자극이 될 것입니다.

기자 : 기술의존적인 싱가폴의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장관 : 정부는 국내 및 외국회사들로 하여금 국내의 생산활동에서 전후를 통합하는 보다 개선된 방법을 활용하도록 고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기지로서 싱가폴을 활용할

것이 아니고, 보다 많은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싱가폴은 외국상사에 의한 전문기술의 이전과 좀더 많은 기사와 과학자를 훈련하는 연구개발재단을 발족시킬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것을 위하여 여러가지 지원계획과 세계상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연구개발 지원계획의 보다 튼튼한 하부구조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자와 세포생물학연구소, 시스템과학연구소와 기술관장본부와 같은 많은 연구소를 설립한바 있으며, NUS와 NTI 근처에 과학공원을 이미 건설하였습니다.

기자: 작은 나라로서 국제시장의 보호주의에 어떻게 맞설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 싱가폴 자체가 전 세계에 가장 개방적인 경제체제로 공개하고 있으며, 외국과의 총무역거래액이 GDP의 3배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무역정책이 싱가폴을 이롭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붕괴된다면 싱가폴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비록 싱가폴이 작기는 하지만 GATT의 상위 20개 무역국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싱가폴과 아세안은 GATT에서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세안을 포함한 GATT의 주요국가들은 개방형의 상호교역체계를 지지하는 한편, 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루파이 무역협정의 성공적인 결론들은 보호주의에 대한 최소의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기자: 규모는 적지만 싱가폴은 크고 잘 장비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싱가폴 방위정책의 근본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지요?

장관: 우리의 방위정책은 2가지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억제와 외교입니다. 싱가폴군은 능력이 있고 잘 장비된 신뢰할수 있는 군대입니다.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고도의 전투준비태세와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싱가폴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교활동은 싱가폴과 다른 국가간에 방위상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솔직하고 성숙된 관계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자: 싱가폴은 지역내 다른 국가의 침략을 격퇴하도록 도와줄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울러 그러한 의지는 있는지요?

장관: 어떤 국가이든 타국의 영토 보존을 침범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입하였을때 모든 국제질서가 붕괴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적인 협상만이 분쟁 해결의 효과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침략은 더많은 침략을 유발시킬 뿐이며, 어떤 해결책도 될수 없습니다. 싱가폴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해결을 하려는 국가라면 언제나 도와줄 것입니다.

기자: 싱가폴은 훌륭한 방위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장관님은 국내 방위산업 능력의 더 많은 신장을 예상하십니까? 싱가폴 정부는 해외판매를 지원할 것인지요?

장관: 싱가폴의 방위산업은 총체적인 국방능력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싱가폴의 억제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성장을 위해 싱가폴군 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방부와의 거래는 40%에 불과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업적인 차원으로 해야하며, 정부의 공공기금을 보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 참고자료

- ▲ 「Singapore-Facing in the Future」, 〈Miltech〉, 1990년 2월호
- ▲ 朴星俊, 「싱가포르·말레이지아·인도네시아간 방위협력 확대」, 월간 〈국방과 기술〉, 1989년 8월호 (통권 제126호)
- ▲ 李海旻, 「中·蘇와 東南아시아」, 월간 〈국방과 기술〉, 1989년 9월호(통권 제127호)